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4 [21~25]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 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웁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덕이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公怯)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公怯)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볼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댁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자부: 며느리.

*존구: 시아버지를 높이는 말.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응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댁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주인댁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듣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댁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설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A]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 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작·도참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 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어 살아가리까?

- 안석경, 「검녀」 -

*기사: 기이한 선비.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서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10.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부'는 '노파'를 위로하는 척하며 궁금한 사실을 물었다.
- ② '유씨 부인'은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 ③ '김씨'는 혼인한 날 밤에 자객에 의해 '신랑'을 잃었다.
- ④ '장 시랑'은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하였다.
- ⑤ '친정 부모'는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원통하게 여기는 한편으로 기뻐하였다.

11. [A]에 드러난 '노파'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② 미래의 성취를 확신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③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위기에 처한 '소저'와 '저'가 몸을 숨긴 곳이다.
- ② ㉡: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저'와 함께 찾아간 곳이다.
- ③ ㉢: '소저'가 자신이 한 일을 죽은 부모에게 고한 곳이다.
- ④ ㉣: '저'가 '선생'과 함께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는 곳이다.
- ⑤ ㉤: '저'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려는 곳이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 ① (가)의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 댁을 찾아가'는 것에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김씨'가 '곳간 문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이후의 일은 존구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기존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저'가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것에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의 '저'가 '소저'의 당부에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것에서,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사실을 밝혔'다는 것과 (나)의 '저'가 '남장을 하고' '칼 쓰는 법을 익혔'다는 것에서, 남장한 여성이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보 기>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 읽기 전 활동

'김씨열행록'과 '검녀'는 모두 능동적인 주인공이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김씨열행록'은 결국 기존 질서에 편입되는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나는 반면 '검녀'의 주인공은 이러한 기존 질서를 부수고 속세를 벗어나는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을 유의하며 보면 되겠습니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 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날날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옵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덕이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恐怯)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였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怯)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작품 내에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한 노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김씨는 노파의 집에 머물던 중 노파와 한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대화는 놀랍게도 김씨의 누명과 관련이 있는 남편 살해사건의 진실을 다루고 있는 대화이고, 김씨는 노파를 구슬려 이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가 놓여있는 위치가 쌀독 안임을 듣고, 유씨 부인이 진범임 또한 알아냅니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역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댁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불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댁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 자부 : 며느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김씨는 이러한 진상을 알아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시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있던 시아버지를 남자로 변장하여 중요한 말이 있다며 들어가 만납니다. 이렇게 할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김씨 부인은 남편의 머리가 있는 위치인 '곳간'을 열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진상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능동적으로 남장을 하는 해결책을 생각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고, 자신의 누명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지원 없이 본인이 직접 시아버지 앞에서 진상을 밝힘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김씨 부인은 매우 능동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사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 존구: 시아버지를 높이는 말.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결국 남편의 머리를 찾아내어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한 김씨 부인입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했듯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능동적인 인물로 드러나지만, 결국 자신의 처우를 시아버지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의 질서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작품 총평

김씨 부인이 자신의 누명을 벗게 되는 과정에 집중하여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듣게 된 사건의 진상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일반적인 가부장제 속에서의 여성상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를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또한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응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맥의 종이었습시다. 마침 주인댁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듣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댁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인’은 모씨 맥의 종으로, 주인댁의 딸과 같은 해에 태어나 소꿉 시중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겨우 9살에 주인집은 어느 권세가의 손에 의해 멸망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딸과 유모, 그리고 ‘여인’만이 목숨을 보전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 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결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 기사: 기이한 선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검술을 배워 집안의 복수에 성공한 소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인’의 주인인 소저는 복수에 성공한 후 자신은 가문의 대를 잇기는 이미 늦은 듯 하니 자결하겠다고 자신의 보검을 팔아 자신을 묻어주고, ‘여인’은 나라를 두루 돌아보며 기사를 만나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라며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더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여 살아가리까?

- 안석경, 「검녀」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여인’은 남장을 한 채로 삼 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고명한 선비로 이름난 ‘소옹천’이라는 선비를 찾아가 혼인하고자 하는데, 소옹천은 이름만 높을 뿐 실제로는 실력 없는 문인으로, ‘여인’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보기>에서 이야기했듯 실력 없는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곳을 떠나 속세와 멀어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특정 사물에 빗대어 어떤 숨겨진 뜻을 던져서 비추는 장면이 등장해야 하나, 이러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인물의 내적 독백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결말 또한 김씨 부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며 끝나고 있습니다.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작중에서 꿈을 꾸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의 비현실성은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 해결의 단서가 비현실적 공간이나 인물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아닌 우연히 ‘노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제시되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서술 시점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술 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서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라는 표현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서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신부’는 ‘노파’를 위로하는 척하며 궁금한 사실을 물었다.

→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금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 날날이 물으니,’를 보았을 때 신부는 노파를 위로하는 척하며 궁금한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② ‘유씨 부인’은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 유씨 부인은 노파가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라고 말한 것을 보아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김씨’는 혼인한 날 밤에 자객에 의해 ‘신랑’을 잃었다.

→ 노파가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라고 한 것을 보아 ‘김씨’는 혼인한 날 밤에 자객에 의해 ‘신랑’을 잃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장 시랑’은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하였다.

→ ‘장 시랑’은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자 ‘중대한 사단’이 있다고 말하자 ‘김씨’를 들여보내 줍니다.

⑤ ‘친정 부모’는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원통하게 여기는 한편으로 기뻐하였다.

→ ‘친정 부모’는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통한 한편에도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A]에 드러난 ‘노파’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노파는 과거에 자신의 양자가 살인 청부를 받고 사랑의 아들을 살해한 것을 언급하며 ‘공경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가 든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② 미래의 성취를 확신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미래의 성취를 확신하지 않고 과거에 아들이 저지른 일을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③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아들의 행동에 죽어도 마땅하지만 떠난다고 말하니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노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는 보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한탄이 드러날 뿐입니다.

④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인 청부를 받고 신부의 남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말은 옳지 못합니다.

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

→ 그나마 헛갈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러나, '김씨'가 살해당한 신랑의 부인임을 모르는 노파는 '김씨'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 보기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지 않고 아들의 행동에 탄식하고 있음을 안다면 해당 선지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타관
- ㉡ 원수의 집
- ㉢ 부모의 산소
- ㉣ 큰 도회지
- ㉤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

① ㉠: 위기에 처한 '소저'와 '저'가 몸을 숨긴 곳이다.

→ 권세가의 손에 집안이 멸망 당했을 때 '소저'와 '저'는 '타관'으로 피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몸을 숨긴 곳이 맞습니다.

② ㉡: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저'와 함께 찾아가는 곳이다.

→ '소저'는 부모의 복수를 위해 검술을 배우고 '저'와 함께 원수의 집에 찾아가 그들을 몰살합니다.

③ ㉢: '소저'가 자신이 한 일을 죽은 부모에게 고한 곳이다.

→ '소저'는 부모의 무덤을 찾아가 자신의 집안을 멸망시킨 집안을 똑같이 멸망시킴으로써 복수를 성공시켰음을 이야기합니다.

④ ㉣: '저'가 '선생'과 함께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는 곳이다.

→ '저'가 선생에게 도회지에서 큰 포부를 갖지 않고 '아전 부류'의 자식이나 가르치며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비해 명성만이 높아 선생에게 필시 화가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저'가 '선생'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지 의식의 충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⑤ ㉤: '저'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려는 곳이다.

→ '저'가 '선생'의 수준에 실망한 후 자신이 결심한 바와 소저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 가는 곳이 맞습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보 기>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① (가)의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 맥을 찾아가'는 것에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 맥을 찾아가'는 것에서 자신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가)의 '김씨'가 '곳간 문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이후의 일은 존구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기존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김씨'는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 이후의 처분은 시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당대 여성상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결국 자신의 처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저'가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것에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저'는 '선생'이 기사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선생'의 능하신 바가 '문장의 잔재주'나 '잡설' 뿐이기 때문으로, 이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나)의 '저'가 '소저'의 당부에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것에서,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소저'는 기사를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에 은거하는 '선생'을 찾아갔으나, 선생은 명성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질서를 거부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선생을 찾아간다는 것으로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비약이 심한 선지입니다.

⑤ (가)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사실을 밝혔'다는 것과 (나)의 '저'가 '남장을 하고' '칼 쓰는 법을 익혔'다는 것에서, 남장한 여성이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남장을 하고 누명을 씻기 위해 시랑을 만나러 가는 것과 '저'가 '남장을 하고' '칼 쓰는 법'을 익혀 '소저' 부모의 복수를 진행하는 점에서 남장한 여성이 당대의 기준에서 여성의 몸으로는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